

EYA 중국 도서 소개

안녕하세요?

EYA에서 보내드리는 2015년 8월 셋째 주 두 번째 중국어권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된 도서의 검토서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 newsletter@eyagency.com 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看见

가제 : 보다

저자 : 柴静 차이징

발행일: 2013년 01월 01일

분량 : 405

장르 : 에세이



중국 중앙방송(CCTV)의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 했던 전직 여성 앵커 차이징이 지난 10년간 취재했던 중국 사회에 대한 기록과 중국사회에서 여성 앵커로서의 살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북경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는 중국의 “스모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자의 기질을 십분 발휘해 직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던 저자가 쓴 이 책은 꾸준히 중국 베스트 순위에 오르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저자소개>

차이징

저자는 1976년 중국 산시(山西)에서 출생했다. 1998년에 중국 미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에는 CCTV의 동방시공(东方时空)프로그램의 앵커가 되었다. 2003년 중국 CCTV 뉴스조사(新闻调查) 사스 취재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또한 스모그 다큐멘터리 '차이징 스모그 조사: 돔 지붕 아래(柴静雾霾调查: 穹顶之下)' 라는 공익 다큐멘터리의 제작자이기도 하다. 저자는 100만 위안이라는 자비를 들여 스모그를 주제로 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중국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첫 딸은 태어나기도 전에 종양이 있다는 선고를 받는다. 딸은 태어난 직후 종양제거

를 위해 목숨을 건 큰 수술을 감행해야 했고, 저자는 딸의 병이 스모그와 연관되었다는 판단 아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저자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모그의 심각성에 대해 알기 바라며,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환경보호부 등 각 부처 전문가들과 미국 유럽 등지를 직접 취재하러 다녔다.

<내용소개>

언론계에 들어선 한 신입 여성 사원이 겪은 실패와,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에 맛본 쓰라린 경험 등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다. 입사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 중앙방송에서 제일 큰 인기를 누리는 여기자이자 아나운서가 된 차이징은 지금이 있기까지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지금의 차이징이 되었는지, 어떤 삶의 굴곡을 겪어왔는지, 어떠한 사상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록해 왔는지 이 책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또한 이 책은 CCTV(중국 중앙방송)에서 10년간 근무한 저자가 직접 기록한 취재노트를 엮어 출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중앙방송의 유명한 기자이자 아나운서였던 저자가 대형 방송국 일선에서 취재 생활을 하며 기록해 온 내용들이기에 10년간의 중국 대형 사건사고 등 중국 10년간의 변천사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스, 원찬 대지진, 화남 가짜 호랑이 사건, 환경오염 문제 등의 취재기록과 소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뿐 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 1장: 사회자나 앵커도 다 같은 사람이다.
- 2장: 이 따듯한 떨림은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 3장: 두 도시의 상처
- 4장: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 5장: 물속에 물이 섞인 듯, 결국 우리는 구분해 내지 못할 것이다
- 6장: 침묵 속에서의 비명
- 7장: 산서, 산서
- 8장: 나는 단지 굴복하기 싫을 뿐이다
- 9장: 많은 일들은 누군가가 믿어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 10장: 어떤 일의 진실은 왕왕 눈물을 맞는다
- 11장: 진실과 지식을 추구할 뿐이다
- 12장: 옛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
- 13장: 사실은 이와 같다
- 14장: 진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15장: 가녀린 청록의 소리 외엔 듣지 못했다

16장: 진흙을 벗어난 사고

17장: 무능력

18장: 취재는 환자끼리의 건네는 심문과도 같다

19장: 나에게 왜 그렇게까지 사모하는지 묻지 마라

20장: 나이트 등에는 죽지 않았다